

중종 재위기 조선 사대부 남성의 철릭과 답호를 응용한 인형의상 디자인 연구

최 정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학과 부교수

요 약

조선 중종 재위기(A.D.1506-1544)는 미디어 콘텐츠에 적합한 정치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대이나, 해당시기의 복식유물 수가 적고 고증을 거친 인형의상 문화상품으로 응용된 경우도 매우 드물다. 이 연구는 중종 재위기 사대부 복식의 특성을 응용한 남성인형의상을 고증하여 디자인하고, 고증연구가 적은 인형의상 분야의 콘텐츠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사대부의 평상에복이었던 철릭과 답호이다. 이는 조선 전기에 관복 단령의 일습으로 착용되던 의복이기도 했으며, 임진왜란(A.D.1592-1598) 이전의 복식형태를 간직하고 있었다. 출토유물과 문헌을 참고하여 인형의상의 주요 직물로 재질이 부드러운 익명주와 토주(土紬), 연화단, 금선단을 선택하였다. 중종 재위기에 지속적으로 유행하던 쪽염에서 얻어지는 초록색 및 해당시기의 사대부가 의복색으로 선호하던 짙은 홍색을 기초색상으로 선택하였다. 인형철릭의 특징은 풍성한 실루엣, 끝이 잘린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 겹깃과 이중목판깃 안깃, 허리의 잔주름, 주름을 고정하기 위한 흠질, 1:1로 나뉜 상하(上下) 비율, 얼음을 이용한 생쪽염색이다. 인형답호의 특징은 반소매, 옆선에 부착된 네모난 대형 무, 끝이 잘린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과 이중목판깃 안깃, 짙은 홍색, 단령에 묶어 고정하기 위한 끈이다. 가급적 고증을 따랐으나 인형의 신체비율을 따라 허리선을 포함한 일부 디테일이 수정되었다. 연구 결과물은 고증을 중시한 교육적인 인형의상 문화상품의 의미로 제작되었으며, 이후 더욱 대중적인 상품으로 응용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중종 재위기, 인형의상, 고증, 철릭, 답호

I. 서론

16세기 전반기인 조선의 중종(中宗) 재위기(A.D.1506-1544)는 중종반정 이후 관료들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는 시대배경을 가져 문화콘텐츠 자료로 선호되는 시대이다. 이 시기의 복식은 시대배경을 반영할 뿐 아니라 조선복식문화의 변환점인 임진왜란 이전의 복식형태를 간직하고 있으나, 역사드라마 복식 외의 고증 패션문화상품으로 연구된 예는 드물다. 중종 재위기 사대부의 복식은 교육적인 패션문화상품 소스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신형 패션시장인 구체관절인형(Ball jointed doll) 의상 분야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시판되는 남성 전통인형의상은 여성 전통인형의상에 비해 상품 수가 매우 적고, 현존유물자료가 많은 18세기 이후의 편복(便服), 군복(軍服), 아동복, 캐릭터 이미지와 장식성을 강조한 퓨전(fusion) 드라마 의상을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고증을 거친 중종 재위기 남성복식을 테마로 한 인형의상은 찾기 어렵다. 이 연구는 중종 재위기 사대부 복식의 형태와 재료를 관찰한 후 인체와 가장 유사한 외형을 지닌 구체관절인형의상으로 고증재현하여 일반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인형의상 연구분야에 교육적인 문화상품 콘텐츠 예시를 더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종 재위기 사대부 복식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고, 이 시기 복식의 형태, 재료, 색상, 사회적 현상을 인형의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해당시기 복식의 특성을 증시한 디자인을 도출한 후 아직 고증복식 연구에서 생소한 분야인 인형의상으로 결과물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교육용 고증 패션문화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복식사료와 현존유물이 조선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이므로, 해당시기의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의 경우 중종 재위기 직전과 직후의 자료를 부

분적으로 참고하기로 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현존유물을 참조하여 디자인 참고유물과 고증디자인시의 강조점을 선택한다. 비교적 최근의 관련 선행연구는 해당시기의 답호와 철릭 관련 복식유물 연구(김은정, 윤은영, 2007¹⁾; 송미경, 2009²⁾; 안명숙, 2011³⁾; 이은주, 2006a⁴⁾; 이은주, 2006b⁵⁾; 이은주, 2006c⁶⁾; 최은수, 2003⁷⁾) 답호를 이용한 코트 디자인 연구(김월계, 2009⁸⁾), 전통염색과 견뢰도에 관한 연구(신윤숙, 최승연, 2007⁹⁾; 양월 외, 2012¹⁰⁾), 여성형 인형의상을 다룬 고증 구체관절인형의상 연구(최정, 2011¹¹⁾)로 나누어진다. 고증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 외에 「중종실록(中宗實錄)」, 「미암일기(眉巖日記)」, 「조선부(朝鮮賦)」 등의 문헌자료, 중종 재위기 사대부의 현존복식유물을 주요 참고자료로 선택하였다. 둘째, 선택된 유물과 고증자료의 형태와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동시에 인형의상과 고증문화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 샘플을 제작한다. 셋째, 결과물을 연구대상인 인형에 착용시켜 관찰하고, 인체용 고증의상과의 차이점 및 이후의 개선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종 재위기 사대부 복식과 고증문화상품의 관계

조선 전기 사대부 복식의 형태적 특성은 14세기 말부터 임진왜란(A.D.1592-1598) 이전인 16세기에 걸쳐 완성되었다. 복식고증연구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분야인 드라마 복식을 예로 들면, 2008년 KBS2의 『대왕 세종(大王世宗)』, 2014년 KBS1의 『정도전(鄭道傳)』의 복식에 이러한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 드라마들의 복식에서도

포의 세부와 깃끈을 포함한 장식부분이 실제와 다소 다르고, 현대적인 직물과 더불어 경제성과 활동성을 위한 변형이 가해졌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했거나 금지되었던 의료(衣料)의 고증은 부족한 편이며, 배경이 15세기 전반기여서 14-16세기에 걸친 조선 전기 복식의 세부적인 변화와 차이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03년 MBC의 『대장금(大長今)』부터 현재까지 제시된 중종 재위기를 다룬 드라마의 복식을 보면, 캐릭터의 특성을 잘 반영되었으나 중종 재위기의 복식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고증의상은 찾기 어렵다.

고증인형의상 문화상품 연구에서는 고증의 정확성, 심미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중종 재위기 사대부 복식의 특성이 강한 의복, 전통인형의상에 적합한 심미성을 갖춘 대상, 세트구성 시에 개체수가 적은 아이템을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해당시기에 단령의 밀받침 포였으며 사대부의 응복 겸 편복(便服)이었고 허리주름이 있어 울동미가 뛰어난 철릭과 그 위에 덧입던 답호는, 조선 전기의 후반부이자 임진왜란 이전인 중종 재위기의 복식형태, 심미성, 사회배경이 잘 드러나며 적은 개체수로 세트를 구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중종 재위기는 연산군(燕山君)의 폐위 후에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이어진 혼란의 시기였다. 연산군 재위기의 잔재인 사치스러운 복식생활과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국책으로 ‘검소함’이 강조되었고 사치금지령이 지속적으로 내려졌으며, 사회적으로 병폐가 되었던 유행 복색(服色)에 대해 경계하는 기록도 빈번히 나타난다. 「중종실록」에 의거하면 이 시기의 철릭은 도원수(都元帥), 순변사(巡邊使), 나이 많은 노인, 복경 사은사(謝恩使)에게 두루 하사되었고,¹²⁾ 답호와 함께 사대부의 간편한 예복으로 쓰이거나 관복(官服)인 단령(團領)의 밀받침옷으로 착용되었다.

샘플 제작 시에는 문헌과 유물의 특징을 신중

하게 반영하여 개인적인 디자인 성향은 가급적 배제하고, 가능한한 형태, 색상, 직물의 태를 실제 중종 재위기의 사대부 복식에 가깝게 재현하도록 한다. 그러나 인형의상은 판매를 전제로 한 패션문화상품이므로, 인체보다 다소 미화된 인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부분적인 사이즈와 디테일 변형은 불가피하나, 가급적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적용하도록 한다.

2. 남성 구체관절인형 전통의상 상품의 현황

현대의 패션문화상품은 ‘문화적 의의와 상업성을 중시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의류관련상품’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강경미 외(2010)¹³⁾는 문화관광상품은 문화와 정서, 환경을 내포하며 기념품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관광객의 기호에 맞고 휴대와 운반이 용이하며 선물용으로 가능한 상품이어야 함을 밝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중시하되, 일반적인 개념의 관광객 뿐 아니라 국내외 인형 소장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고증인형의상 문화상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고증인형의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려면 착용 시 실물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인형모델이 필요하며, 시판되는 인형 중 인체와 가장 유사한 비율과 외모를 가진 것은 구체관절인형(Ball-jointed Doll)이다. 이는 전문조형가에 의해 제작되는 고가의 취미상품이며, 재료가 우레탄이어서 일광에 노출되면 황변(黃變)되므로 세심한 보관 및 주의가 필요하다.¹⁴⁾ 사이즈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제작되는 머리 및 몸 부분과 서로 호환시킬 수 있으며, 일부 의상패턴도 상품화되어 있다. 현재 일반적인 구체관절인형의상 캐주얼(casual) 세트는 약 4-7만원 전후, 드레스(dress)는 약 20만원 전후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남녀 전통인형한복과 퓨전사극 인형의상은 고급직물이 이용되거나 부속

<표 1> 국내 온라인 샵의 조선시대 남성 구체관절인형 전통의상(한복) 상품의 현황

회사명	상품명	신장 (cm)	의복구성	시대 (용도)	특징
Luts (http://doll.luts.co.kr/)	ZDF 한복 男	19	색동 저고리, 바지, 버선, 복건	조선 후기 (아동복)	세트(주방실 인형한복 위탁상품).
	HDF 한복 男	26	색동 긴저고리, 바지, 버선, 복건	조선 후기 (아기복)	세트(주방실 인형한복 위탁상품).
	히니델프 한복 세트	26	긴저고리, 바지, 술띠, 버선	조선 후기 (아기복)	세트 (주방실 인형한복 위탁상품).
	KDF 색동 도령복 세트	42.5	색동 긴저고리, 바지, 술띠, 버선	조선 후기 (아동복)	세트
	꼬마델프 도령 세트	42.5	긴저고리, 바지, 술띠, 버선	조선 후기 (아동복)	세트
	도깨비 유즈	42.5	동달이, 전복, 바지, 아대, 허리띠와 장식	조선 후기 (퓨전 아동군복)	세트 (인형 포함, 기간 한정판)
	도깨비 노트	19	동달이식 저고리, 전복, 바지, 아대, 허리띠와 장식	조선 후기 (퓨전 아기군복)	세트 (인형 포함, 기간 한정판), 품질
	SDF BOY 현무 세트	62.5	저고리, 장배자, 패자, 바지, 아대, 도포근	조선+퓨전 (퓨전무사복)	세트, 품질
	SDF 적월 세트	62.5	도포, 조끼, 바지, 띠, 대님, 버선	퓨전한복	세트
비고: 여성형 인형 전통 조선후기한복(치마, 저고리) 11세트.					
Dollmore(http://www.dollmore.com/)
비고: 남성형 인형 기모노(남녀공용 포함) 20점, 여성형 인형 전통 조선후기한복(치마, 저고리) 11세트.					
Iplehouse (http://www.iplehouse.com/)	류신 세트	63	흑삿갓, 바지, 저고리, 반비, 허리띠, 장화, 머리띠, 겹	조선+퓨전 (퓨전무사복)	세트 (인형 포함, 기간 한정판), 품질
주방실 인형한복 (http://www.dollhanbok.com/)	편복 세트(3점)	63	대창의, 바지, 장반비 또는 패자, 띠, 갓	조선 후기 (편복)	세트(오더메이드 판매).
	두루마기 세트	63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조선 말기 (일상예복)	
	배자 세트(4점)	63	저고리, 바지, 배자, 띠	조선 후기 (미혼남성복)	
	도령복(29점)	43/26/19	저고리 또는 전복형 저고리, 전복, 바지, 복건, 술띠	조선 후기 (아동복)	
	도령복(14점)	26/19	위와 같음(복건 미포함).	조선 후기 (아동복)	
	커플 한복(3점)	63	용보, 장배자, 저고리, 바지	조선 후기 (퓨전 궁중복)	
	군복(2점)	.	동달이, 전복, 병부. (전립 포함상품 1점)	조선 후기 (군복)	
	왕복(2점)	63/43	곤룡포/왕 전복	조선 (궁중복)	
	선비복(5점)	.	대창의, 철릭형 답호 또는 전복, 갓, 술띠	조선 후기 (편복)	
	비고: 남성인형용 영화 캐릭터 의상(2점), 사극의상(1점). 남성인형 한복보다 여성인형 한복의 개체수가 많음.				

-비교적 규모가 크고 한복상품 개체수가 많은 샵을 중심으로 함.

-남성용 인형한복의 개체수가 적으므로, 전체적인 비교를 위해 품질상품을 포함함.

*2013. 3월 -2013. 11월 조사



<그림 1> 『도깨비 유즈』 세트
(퓨전 아동군복)
(출처: <http://doll.luts.co.kr/>)



<그림 2> 『SDF BOY 현무 세트』
(퓨전 무사복)
(출처: <http://doll.luts.co.kr/>)



<그림 3> 『선비복』
(조선 후기 스타일의 답호 세트)
(출처: <http://dollhanbok.com/>)

품이 많아 가장 고가격대인 상품 중 하나이다.¹⁵⁾

<표 1>은 비교적 규모가 크며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국내 구체관절인형 샵의 남성인형한복 상품현황이다. 연구주체를 고려하여 관찰대상은 조선시대 남성인형한복으로 한정했으며, 구체관절인형과 관련용품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판매되므로 온라인 샵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위와 유사한 규모의 회사는 약 10여곳에 달하나, 한복상품을 갖춘 곳은 많지 않았다.

여성인형한복과 기모노에 비해 남성인형한복의 수는 매우 적고, 대부분 미적 효과는 높으나 시대 범위는 조선 후기 복식 및 아동복, 퓨전한복과 퓨전군복 및 무사복, 도령복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그림 2>. 이는 조선 전기의 복식자료가 조선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시각효과가 강한 인형한복을 선호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2010년 11월에 연구자가 20대 구체관절인형 카페 운영자와 20대 패션 전공자를 대상으로 행했던 소규모 인터뷰에서는 “구체관절인형용 기모노는 단품이어서 한복 세트보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적다.”라고 응답한 패널도 있었다. 그러나 남성인형한복은 세트 상품이 대부분이며, 예를 들어 아동한복 세트는 모자와 띠를 포함해 약 12-13만원 가량의 가격대이고 약 2주가 소요되는 선주문 방

식으로 판매되므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시간과 금전 부담이 큰 상품에 속한다.

본래의 조선 남성한복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상품은 주방실 인형한복(<http://dollhanbok.com/>)에서 관찰되는데, 역시 조선 후기 복식과 아동복이 주를 이루며 미적효과를 위한 퓨전 디테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림 3>은 주방실 인형한복 사이트에 제시된 『선비복』으로, 답호 하단까지 플리츠(pleats) 형식의 주름을 잡고 유물의 형태 일부를 변형시킨 예이다. 이상에 의하면, 현재 조선 남성인형한복 상품의 한계점은 조선 후기로 집중된 시대범위, 무사복, 도령복, 아동복, 조선 후기 선비복으로 한정된 품목, 아이템이 많은 세트 상품 구입시의 금전적 부담,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퓨전 디테일 첨가 등으로 나타난다.

3. 고중디자인 시의 유의점과 구체관절인형 모델 선정

이 연구에서는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중종 재위기의 복식을 당시의 복식문화에 맞게 인형의상으로 재현하여, 해당시기의 남성복식 고중상품이 적은 인형의상시장의 상품범위를 넓히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중종 재위기의 사대부가 착용하던 예복 풀 세트(full set)를 갖추려면 흉배를

포함한 단령, 각대, 사모, 밀받침으로 입던 포 류와 부속품이 필요하므로, 아이템의 가짓수가 많아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철릭과 답호 세트를 기본으로 가격부담을 줄이는 대신, 당시 사대부의 복식생활을 설명한 리플릿(leaflet)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학술적인 문화상품으로 구상하였다. 종종 재위기의 철릭과 답호는 조선 후기의 유물과 다른 특성을 지녔고, 이 시기에 크게 유행하던 의복색상이 기록에 나타나므로, 시판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이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재 온라인 샵(Online shop)에 게시된 소비자의 의견과 구체관절인형 커뮤니티를 관찰한 결과, 가장 선호되는 인형 타입은 비교적 보관하기 쉽고 다양한 의상과 소품이 제작되는 어린이(신장 40cm 전후)와 청소년(신장 60-65cm 전후) 타입이었다. 이 연구의 주제는 종종 재위기 사대부 의복을 컨셉으로 한 고중인형의상이므로, 사이즈 선호도가 높으며 성인남성과 유사한 외형을 가진 신장 63cm 급의 청소년 타입 남성형 구체관절인형을 모델로 선택하였다.

III. 종종 재위기 철릭과 답호의 고증 연구

1. 종종 재위기 철릭과 답호의 어원과 용도

철릭은 첩리(帖裡), 천익(天翼)으로도 불리웠으며 허리에 잔주름을 잡아 밑단을 넓혀 움직이기 편하게 만든 포를 총칭하는 용어로, 몽골에서 유래된 의복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의 철릭은 몽골 스타일과 비슷하여 품과 소매가 좁고 허리에 요선(腰線)이 부착되기도 했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 요선은 소멸되고 품이 넓어지면서 매듭단추로 위아랫소매를 연결한 분리형 소매가 나타난다. 최혜울

(2008)¹⁶⁾을 참고하면 철릭의 명칭은 본래 테를릭(terlig)으로 용복(戎服)이란 의미에 가깝고 허리에 주름을 잡은 의복만을 일컫는 용어는 아니었으나, 원(元)에서 고려로 도입될 때 특히 허리에 주름을 잡은 포에 철릭 또는 첩리, 천익이라는 음역 명칭이 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종종 재위기에는 앞서 밝혔듯 관리와 평민을 위한 왕의 하사품, 단령의 밀받침옷, 용복과 평상에복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답호(搭紵, 搭胡, 塔胡, 搭忽)는 음역 명칭이며 철릭처럼 원(元)에서 도입된 복식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말로 더그레라고 불리웠고, 조선 중기까지 포 위에 덧입던 긴 반소매 예복의 총칭이다. 송미경(2009)¹⁷⁾은 답호가 일상복이자 단령의 받침옷이어서 조선 전기 출토복식은 철릭, 답호, 단령의 순서로 수습되기도 했으며, 광해군 재위기인 17세기 전반기 이후 단령의 받침옷인 답호의 기능이 직령(直領)으로 대체되면서 답호의 존재가 점차 사라졌음을 밝혔다. 윤소정(2006)¹⁸⁾은 「미암일기」를 참고하여 종종 재위기 40여년 후인 1588년에 천사(天使)가 올 때 신하들이 조복답호(朝服搭紵)를 입었으며, 철릭 위에 답호를 입고 검과 활을 갖춘 시위복은 기복(器服)이라고 명명되었음을 밝혔다. 상황과 용도를 고려하면, 연구의 주제인 종종 재위기의 철릭과 답호 세트는 전통인형의상 카테고리 중 ‘평상에복’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종종 재위기 철릭과 답호의 형태

16세기 전반기 철릭은 <그림 4>¹⁹⁾, <그림 5>²⁰⁾처럼 대부분 상하 비율이 약 1:1이거나 상의가 다소 길며, 허리선은 아랫배 부근에 있다. 이후 16세기 후반기의 철릭 상하 비율은 약 1:1.4²¹⁾, 17세기의 철릭 상하 비율은 약 1:2 비율로 변화하였다 <그림 6>²²⁾ 안명숙(2011)²³⁾에 의하면 고운(高雲: 1479-1530)묘에서 출토된 철릭 6점은 이중칼깃, 직



<그림 4> 김흠조 부부 묘 명주 겹철릭, 16세기 (출처: 이은주(2006-b), p.366)



<그림 5> 고운 묘 명주 겹철릭, 16세기 초 (출처: 이은주(2006-a), p.358)



<그림 6> 신경유 묘 투주(土紬) 겹철릭, 17세기 초 (출처: 『정사공신 신경유 공훈 출토복식』, 2008, p.90)



<그림 7> 고운 묘 명주 겹답호, 16세기 초 (출처: 이은주(2006-a), p.357)

배래에 가까운 사선소매, 치마부분은 12-14폭으로 16세기 철릭의 특성을 보이고, 화장의 길이는 110cm 이상으로 인체의 화장보다 매우 길고 소매 길이가 손 끝을 지나 길게 내려가는데, 같은 시기의 다른 사대부 묘에서 출토된 철릭도 세부를 제외하면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겉깃은 깃 가운데 이음선이 있고 끝부분이 사선으로 잘린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²⁴⁾ 안깃은 이중목판깃 형태가 많았고, 등길이 120-130cm 전후에 상하의 비율은 1:1이거나 상의가 더 길며, 품이 넓고 화장 길이는 대략 110-120cm 전후여서 대부분 풍성하고 느슨한 실루엣이다. 이 시기의 철릭소매는 위아래가 이어진 것과 매듭단추를 부착한 분리형이 모두 존재하며, 조선 후기 철릭의 넓은 두리소매에 비해 좁고 직선적이지만 몽골·고려 스타일 철릭의 좁은 소매보다는 넓은 과도기적 형태를 나타낸다.

이은주(2006-a)²⁵⁾에 의하면 고운 묘 출토유물 중 갈색 명주 겹철릭유물은 치마 12폭에 주름은 0.3cm 간격이며 허리선에서 2.5cm 아래에 주름을 고정하기 위한 홈질이 발견된다. 철릭에 직선형 고름바대가 부착된 경우도 있는데, 이은주(1999)²⁶⁾는 3cm 가량으로 나비가 넓은 김흠조 부부 묘의 철릭 고름바대는 금선, 운문사, 철보운문단 등의 고급 직물을 썼음과 『증중실록』 중종 25년(1530년)에 평상시의 용복에 장식했다고 기록된 금선 팔작(八雀)이 이 형태였을 가능성을 밝혔다.

안명숙²⁷⁾에 의하면 고운(高雲: 1479 -1530)묘 출토 답호는 끈은 교차형 여밈, 반소매, 옆선에 넓은

사각무가 달린 일반적인 임진왜란 이전 답호의 형태를 지녔다. <그림 7>은 고운 묘 답호의 한 예로, 임진왜란 이전 답호의 모습이 잘 나타난 유물이다. 송미경²⁸⁾은 조선 전기의 답호 깃은 이중목판깃, 이중칼깃, 칼깃 순으로 변화함을 밝히고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 형태를 이중목판깃의 일종으로 분류했는데, 중종 재위기에 사망한 사대부들의 유물 답호의 겉깃은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과 이중칼깃, 안깃은 이중목판깃 형태가 대표적이다.

간혹 겨드랑이 외부에 끈이 달린 유물도 발견되는데, 이은주²⁹⁾는 고운 묘 답호의 양 겨드랑이에 부착된 끈은 답호를 단령의 밑받침 옷으로 입을 때 매어 고정하기 위한 끈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깃의 차이를 포함한 세부를 제외하면 중종 재위기의 답호는 전형적인 임진왜란 이전 답호의 특성이 반소매, 깊게 교차하는 여밈, 넓은 사각무가 부착된 것이 대부분으로, 시대적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³⁰⁾를 보면 연산 11년(1505년)에 “철릭(帖裏)은 마땅히 가장 짧게 만들고, 답호(塔胡)와 단령(團領)은 마땅히 좀 길게 하여...”라 기록되었으므로, 중종 재위기의 답호에도 이러한 경향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3. 중종 재위기 철릭과 답호의 직물

중종 재위기 전후의 사대부 가(家) 출토복식 중 남성복식유물의 재료는 무늬없는 직물이 주류이며 간혹 나타나는 운문단(雲紋緞)과 화문단(花紋緞)

포 류는 사치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2000)³¹⁾에 의하면 연산군-중종 재위기의 변수(邊脩: 1447-1524) 묘 철릭의 직물은 면주(綿紬), 연화만초문(蓮花蔓草紋), 견(絹), 운문단(雲紋緞), 소단(素緞), 라(羅)등으로 비교적 화려하다. 그러나 같은 시대의 다른 사대부들의 철릭재료는 명주를 비롯해 무늬없는 직물이 많다. 이은주(2006-b)는 김흠조(金欽祖: 1461-1528) 부부 묘에서 발견된 철릭 12점의 재료는 교직, 명주, 무명, 삼베, 초(紬) 등이었음을 밝혔다.³²⁾ 역시 이은주(2006-c)³³⁾에 의하면 이연충(李彦忠: 1524-1582) 묘의 철릭 4점의 재료는 모시, 화문단, 명주였는데 위의(威儀)를 위한 백관의 융복 철릭에 쓰이던 고급직물 고름바대 중 운문라(雲紋羅) 고름바대가 이연충 묘의 철릭에서 발견되었다. 금선단을 포함한 고급직물로 만든 고름바대는 재력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철릭에 예복의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이었다.

「중종실록」³⁴⁾에 의하면 중종 14년(1519년)에 은림(殷霖)이 주단(紬單) 답호 착용 금지와 더불어 서리(書吏)와 생도(生徒)에게 염색 답호 착용을 금지하도록 간청했고 중종 17년(1522년)에는 예조에서 동서반(東西班) 정직(正職) 외에는 백저포(白紵布) 답호를 금하도록 간청했는데, 이를 보면 주(紬) 홀답호, 염색 답호, 백저포 답호는 중인 계급에게는 제한되었으나 사대부 남성들에게는 사치품으로 착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은주³⁵⁾에 의하면 이연충 묘에서 출토된 6점의 임진왜란 이전 답호의 재료는 명주, 방공사(方空紗), 문릉 등이며, 송미경³⁶⁾에 의하면 15-17세기 전반까지 답호에 가장 많이 사용된 직물은 주(紬) 종류였다. 철릭 위에 입던 의복이므로, 비교적 고급이며 국내에서 구하기 쉬운 직물을 답호에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중종 재위기의 유행색상

중종 재위기 사대부 철릭의 재료로는 명주, 화

문단, 모시, 무명 등이 쓰였고, 사대부 답호에는 주, 단, 염색 직물, 백저(白紵) 등의 재료가 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종실록」³⁷⁾에는 중종 34년 12월에 천추사(千秋使) 윤사익(尹思翼)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와 “...화(華) 사신의 말이, 전에 가지고 온 초록명주(草綠紬)와 대홍명주(大紅紬)를 고향 친족들이 달라고 해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또 구하는 자가 있어 소세양(蘇世讓)에게 말했는데, 보내준다면 남경(南京) 필단(疋緞)으로 보답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한 기록이 있다. 이를 참고하면 중종 재위기의 초록색과 짙은 홍색 명주는 중국 사신의 친척에게 환영받는 선물 이었고, 중국 대도시의 비단과 교환할 가치를 지닌 조선의 특산물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복식염색과 유행색상을 관찰하였다.

중종 재위기의 의복유행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초록(草綠)염색이었다. 「중종실록」의 초록염색에 대한 첫 기록은 중종 9년(1514년)에 대사간 최숙생(崔淑生) 등이 점점 전해지는 의복의 초록염색을 염려하며 올린 상소였으며, 기록은 이후에도 중종 재위기 전반에 걸쳐 <표 2>³⁸⁾와 같이 나타났다. 비정상적인 초록염색 선호와 낭비를 염려한 중종은 재위 23년(1528년)에 사치금지령의 일환으로 겹옷을 비치게 입지 말 것과 상의원의 쪽색을 표준으로 하라는 전교를 내리고, 적절한 농도로 염색한 직물을 표준으로 삼아 관리복식부터 짙은 초록염색을 금지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쪽염(藍染)으로 추정되는 짙은 초록염색 유행은 계속되어 부인복식에까지 퍼졌으며, 중종 35년에 영의정 윤은보(尹殷輔)가 이를 폐습이며 심한 병이라 언급할 만큼 중종 재위기 복식문화에서 초록염색의 비중은 컸다.

전문공방이 아닌 일반적인 환경에서 쪽으로 초록염색을 하려면 대량의 생쪽잎과 매염제인 다량의 얼음이 필요하다. 정창권(2003)³⁹⁾에 의하면 중종 재위기 이후의 기록인 「미암일기」에 부인이 얼

<표 2> 「증중실록」에 기록된 초록염색 의복 관련 사항

시기	내용	비고
중종 9년 (1514) 10월 25일	이전에 풀빛(草之綠)으로 염색하던 옷을 지금은 압두색(鴨頭色)으로 물들인 후 더 짙게 아청색(鴉青色)으로 만들어 공력과 비용이 낭비됨. (昔之染草綠爲衣者, 其色只取如草之綠而止耳. 今則其色深於鴨頭, 而染鴨頭者, 則轉爲雅青, 爭效新樣, 功重費廣...)	대사간 취숙생(崔淑生) 등의 상소
중종 11년 (1516) 6월 4일	짙은 초록염색을 금지함.(命禁深染草綠)	명(命)
중종 23년 (1528) 8월 18일	사치가 매우 심해 지나치게 짙은 초록염색을 좋아함. (奢侈成風, 莫甚於此時. 至如草綠染色, 以過黑爲尙.) 이전에 5~6필을 염색하던 쪽으로 지금은 1필도 염색하지 못함.(昔日五六匹所染之藍, 今不能染其一匹.)	대사간 유윤덕(柳潤德) 의 건의
중종 23년 (1528) 8월 18일	겉옷에 너무 세밀한 재료를 써서 속옷이 비치도록 한 것은 국산이 아닌 중국재료이므로 금단함. (至如表衣, 過細而裏衣皆見于外, 照耀人目, 此唐物, 非我國之所出也. 如此之事, 皆可禁也.) 짙게 물들인 초록을 좋아하여 밭에 곡식이 아닌 쪽을 심고 너무 짙게 물들이려 하므로, 상의원의 쪽색을 표준으로 할 것.(且好尙深染草綠, 田不種穀, 多種藍子, 務爲過黑...聞尙衣院所染之藍色, 合當云.)	전교(傳)
중종 23년 (1528) 8월 18일	짙게 물들인 초록만 선호하고 옅은 색을 싫어하므로, 상의원의 적절하게 염색한 초록 베를 표준으로 하여 금단하려 함.(爭尙深染草綠, 而不好淺染. 習俗奢侈, 故欲納尙衣院, 適中草綠裁剪, 以爲准則, 而禁之也.) 조관(朝官)들부터 짙게 염색한 옷을 입지 않으면 폐단은 없어질 것임.(深染之色, 朝官皆不得服, 則此弊自無也.)	중종과 승정원의 대화
중종 28년 (1533) 7월 14일	쪽을 쓰는 짙은 초록 의복염색을 중지시킬 수 없고 향간에서 숭상함. (服色染藍謂之草. 今人務尙深染, 法司雖禁不能止. 今者閭閻之間, 爭以深染相高.) 짙은 초록 옷이 없으면 부인들이 부끄럽게 여겨 모임에 나가지 않음. (婦人無深染草綠, 則恥不與會.) 조사(朝士)들도 모두 짙은 초록 옷을 즐겨 입음. (...而朝士亦皆喜服)	대사헌 심언광(沈彦光) 의 탄원
중종 35년 (1540) 6월 1일	초록을 짙게 물들이는 폐습은 심한 병이며 갑자기 중지시킬 수 없어, 예조에서 엄한 금제(禁制)를 만들어야 함. (其中深染草綠, 弊習甚痼, 未能遽止, 令禮曹嚴立禁制)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의 건의

음 4정(四丁氷)으로 주(紬)에 쪽(藍)을 들였다는 기록이 있어, 저온 쪽염 풍습이 사대부 가의 복식문화로 이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미암일기」의 쪽염이 얼마나 짙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 전기에 얼음이 매우 귀했던 점을 고려하면 저온 쪽염은 사대부에게도 사치성 풍습이었을 것이다. 또한 생쪽잎과 얼음만으로 짙은 초록색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쪽 염액을 발효쪽 또는 다른 짙은 색의 염액과 혼합하는 복합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증중실록」⁴⁰⁾ 중종 33년(1538년) 5월의 기록에는 “근래의 세자복색은 상복(常服)과 용복(戎服)에 모두 아청(鴉靑)색을 쓴다. 동방은 푸른색에 속하

므로 이를 숭상하여 세자의 용복(戎服)을 초록(草綠)으로 고쳤으나, 재상들이 모두 초록 옷을 입으므로 아청색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전교가 나타난다. 이에 의하면 당시의 왕족남성 용복과 고위급 관리들의 복식에도 초록색이 널리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용복으로도 입혀지던 철릭에 생쪽염색을 적용하였다.

홍색 역시 중종 재위기에 선호된 사대부 복색이었다. 「증중실록」⁴¹⁾에 의하면 중종 7년(1512년) 2월 10일에 영사(領事) 성희안과 대사간 안팽수가 홍화(紅花)를 지나치게 거두 진상하는 폐단 및 홍화의 다홍색이 어의(御衣)의 색과 너무 비슷함을

염려했으며, 같은 해 2월 17일에는 송일(宋軼)이 “홍색을 금지하지 않아 밀받침옷(裏衣)을 지어입은 지 오래인데...홍단(紅段)과 사라(紗羅)는 금단해야 마땅하다...공복과 조복도 홍색이지만 지금 와서 고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홍색 옷 유행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16년 후의 「중종실록」⁴²⁾ 중종 23년(1528년)의 기록을 보면 홍색을 금지하지 않아 의복이 지나치게 붉고 융복에도 짙은 홍색을 좋아하는 현상을 종종이 염려하자 정광필이 “요사이 6-7년 간 시신(侍臣)들이 다투어 홍색 옷을 입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보면 중종 재위기의 홍색염색은 홍화를 포함하여 염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치품목이었다. 색이 짙어 왕의 의복과 비슷할 정도의 선명함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관리들의 공복, 조복 뿐 아니라 융복과 밀받침 옷에도 두루 이용되었고, 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다.

IV. 중종 재위기의 철릭과 답호를 응용한 인형의상 제작

1. 직물 선정 및 중종 재위기의 유행색상 재현

양 월 외(2012)⁴³⁾는 면직물에 수입 생쪽분말로 염색을 할 때 세탁 및 일광 건조도를 얻으려면 40℃에서 알칼리를 쓰는 환원법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재료는 견직물이며, 연구대상은 황변 방지를 위해 그늘에 보관하고 분비물 오염이 없어서 일광과 세탁에 노출될 확률이 낮은 구체관절인형의상이다. 따라서 「미암일기」를 참고하여 얼음 생쪽염색법을 인형철릭 재료에 적용하였다.




출토유물 철릭의 직물 중 면, 모시, 화문단에는 저온에서 선명한 초록색을 들이기 어려우며, 명주

등의 견 계열 직물이 효과적이다. 실험한 결과 가장 선명하게 염색되는 직물은 옥사였으나, 강직한 옥사로 인체의 약 1/4 사이즈인 인형의상을 제작하면 실루엣이 들떠서 형태에 오차가 생기기 쉽다. 그러므로 명주 중에서 비교적 두텁지만 부드러워서 직선적인 전통의상에 어울리며 철릭 하단 주름의 입체미를 표현하기 적합한 폭 37cm의 토주(土紬)를 선택하였다.

생쪽염은 한정된 계절에만 생산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동결건조된 생쪽분말 100g으로 토주 5마를 염색하였다. 저온 생쪽염색에서는 발색이 탁해지지 않도록 염액과 행굼액을 낮은 온도로 유지하여 빠르게 염색을 마치는 것이 좋다. 생쪽염색 적용 예인 <표 3>의 사진에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얼음을 많이 써서 빠르게 염색한 case 2가 더 선명한 채도를 나타냈다. 2.5×2.5cm의 얼음 16정을 염액에만 사용하고 토주를 20분간 염액에 담근 후 15분간 주물러 3회 염색한 case 1에서는 높은 채도의 색이 나오지 않았다. 반면 지름 10cm의 얼음 1정과 16×24cm의 아이스팩(ice pack) 1개를 염액에 투입하고 같은 아이스팩 1개를 행굼액에 넣어 담금과정 없이 15분간 주물러 2회 염색한 case 2는 더 높은 채도로 염색되었다.

「중종실록」을 보면 짙은 홍색의복 유행에 대해 염려하는 시선도 있었으나, 초록염색 견에 비해 상소의 빈도는 높지 않았다. 이를 참고하여 인형의상에도 홍색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왕의 옷색과 비슷하여 하극상을 연출하기 쉬운 홍화염색 대신에, 비교적 저렴한 재료이지만 선명한 홍색을 나타내는 소목으로 유사한 색상을 재현할 수 있다. 중종 재위기의 답호 유물은 무늬없는 직물로 지어진 것이 많다. 그러나 ‘인형의상의 겉옷’으로서의 상품성과 이 시기 사대부 평상예복의 시각적 포인트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16세기 전반기 사대부 출토복식의 직물 중 시각효과가 강한 연화단(蓮花緞)을 선

<표 3> 생쪽염색 적용 예(실험순서: 좌→우)

case 1	case 1보다 낮은 온도의 염액과 행굼액을 case 2에 적용	case 2
		
2.5×2.5cm 큐빅형 얼음 16정(염액)	16×24cm 아이스팩 1개를 사용하여 행굼	16×24cm 아이스팩 1개 + 지름 10cm 얼음 1정(염액)/ 16×24cm 아이스팩 1개(행굼액)

택하여 발색성이 좋은 소목으로 선명하게 염색한 홍색 담호를 재현하려고 한다. 신운숙 외(2007)⁴⁴⁾에 의하면 자외선에 소목염색 견 직물을 노출했을 때 명반매염한 경우의 염착량 감소가 적었으므로, 자연탈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명반으로 연화단을 선염한 후 염색하였다. 소목을 반나절 이상 우려낸 후 60C 이상의 높은 온도를 유지하며 2회 염색하여 짙은 홍색을 얻었다.

2. 인형철릭의 제작방법 및 특성

중중 재위기 사대부의 철릭유물을 관찰한 결과, 세부의 차이는 존재하나 걸깃은 끝이 사선으로 잘린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 안깃은 이중목판깃 형식이 많았고, 상하의의 비율은 1:1이거나 상의가 더 길며 대부분 풍성한 형태이다. 그러나 출토복식 유물은 인체에 입혀지던 것으로, 인체보다 몸이 가늘고 사지가 긴 인형의 체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승민(2012)⁴⁵⁾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황영일, 신동훈 교수팀은 조선남성의 평균신장을 161cm 가량으로 제시했으나, 이 연구에서는 큰 신장에 익숙한 현대 소비자의 시각적인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가상인체의 신장을 약 165cm로 설정하여 사

이즈에 응용하였다. <표 4>에 제시된 철릭 머슬린 가봉은 유물들의 평균치수를 165cm(가상인체의 신장): 63cm(인형 신장)의 비율로 환산하여 축소한 후, 인체보다 좁고 손이 작은 인형의 몸에 맞추어 뒷폭, 소매길이를 약 1.5cm씩 더 줄이고 어깨길이는 0.5cm 줄인 결과이다. 인형모델은 신장 63cm인 크로비돌(CROBIDOLL)사의 란스(Lance) 레귤러 라인(R-Line Boy Body ver.2: Regular Line)이다.

상하의의 비율이 1:1 가량인 중중 재위기의 철릭을 인체에 입히면 아랫배 부근에 허리주름이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관절인형은 인체에 비해 다리가 길고 상체가 짧아서, 철릭의 상하의를 1:1 비율로 축소하면 인형의 허벅지로 허리주름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득이 상하의를 1:1 비율로 나눈 후 허리선을 1cm 가량 위로 올려 인형의 아랫배에 허리주름이 오도록 수정하고, 다리가 긴 구체관절인형의 몸에 하의의 밑단을 맞추기 위해 하의를 2cm 길게 설정하였다.

중중 재위기가 16세기 전반기임을 강조하여 걸깃은 끝이 사선으로 잘린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 안깃은 이중목판깃으로 하고, 소매는 유물을 참고하여 길이가 손 끝을 넘고 직선배래에 가까운 사선소매로 제작하였다. 중중 재위기에는 소매 위아

래가 이어진 철릭과 매듭단추를 단 분리형 소매의 철릭이 모두 나타나지만, 활동복과 무예복이 아닌 평상예복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소매가 이어진 유물을 참조하였다. 또한 인형의상의 장식성과 평상예복의 의미를 중시하여, 김홍조 부부 묘의 철릭처럼 금선단 고름바대를 부착하였다. 유물의 고름바대 나비는 3cm 전후이지만, 금선단의 태를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 인형철릭의 고름바대를 다소 넓혀 1.8cm 가량의 나비로 제작하였다.

인형철릭은 명주를 주재료로 한 겹철릭으로 설정되었다. 출토유물 중에 겹명주 유물이 많고 종종 재wig에 비치는 재질의 걸옷을 금지하는 전교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은주⁴⁶⁾는 고운 묘 출토 명주 겹철릭 중 상의의 안감은 굵은 모시, 하의의 안감은 명주인 유물이 있음을 밝혔다. 상의에 비교적 강직한 안감을 써서, 촘촘하게 주름을 잡은 하의의 무게와 상의의 형태를 지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참고하여 인형철릭의 상하의 안감도 각각 다르게 구성하였다. 그러나 강직한 모시는 작은 인형의상에 필요 이상의 부피감을 줄 수 있으므로 생쪽으로 염색한 견직 노방으로 대체하였다. 하의부분은 길감으로 토주름, 안감으로는 토주보다 얇은 익명주를 이용하여, 출토유물과 가장 유사한 재료를 쓰되 과도한 부피감을 줄였다. 해당시기의 선호색상을 재현하기 위해 초록색이 나타나는 생쪽염색을 이용했으나, 종종 재wig에 관

리들을 우선대상으로 짙은 초록염색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나타나므로 짙은 색은 아니지만 비교적 선명한 채도를 나타낸 <표 3>의 case 2를 사용하였다.

유물을 참조하면 16세기 전반기인 종종 재wig 철릭에는 0.3cm 이하의 잔주름이 적합하나, 이를 비율대로 축소하여 가는 주름을 잡으면 허리부근의 직물이 계속 겹쳐져 작은 인형의상에 과도한 부피감이 생긴다. 이를 방지하려면 인형철릭의 주름을 비율에 따라 축소한 0.11cm보다 다소 넓게 잡을 필요가 있어, 부득이 잔주름을 약 0.2cm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고운 묘 출토 갈색 명주 겹철릭의 주름고정용 흠질을 참고하여 인형철릭의 허리선 1cm 아래의 주름을 흠질로 고정했다. 매 주름마다 한 번의 흠질을 가해야 안정감 있게 고정할 수 있다. 고름도 착용 시의 형태안정감을 위해 미세하게 넓어졌다. 인형철릭 고증디자인 샘플은 <표 4>, 주요 사이즈는 <표 5>에 제시되었다.

3. 인형담호의 제작방법 및 특성

종종 재wig의 담호 유물은 전형적인 임진왜란 이전 담호의 특성인 반소매, 깊은 교차여밈, 넓은 사각무가 부착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시대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

<표 4> 가능상태 및 인형철릭과 인형담호의 고증 디자인과 주재료

인형철릭 가능상태	고증디자인 인형철릭	고증디자인 인형담호
		
<p>머슬린</p>	<p>토주 걸감/익명주 및 노방 안감/ 금선단 고름바대(생쪽염색)</p>	<p>연화단 걸감/노방 안감 (소목염색)</p>

<표 5> 인형철릭과 인형답호의 주요 사이즈

(단위 : cm)

품목	뒷길이	상의길이	화장	뒷폭	고대	깃길이/깃나비	진동/수구	비고
인형철릭	46	22	42.5	19.4	7	45.7 / 3.8	11.5 / 9.7	치마길이 24
인형답호	47	.	17.8	21.8	7.4	47.8 / 3.6	15.2	무나비 5.3(위), 5.8(아래)/ 무길이 24.6

겉깃과 이중목관깃 안깃을 인형답호에 적용하였다. 고운 묘 답호에서 보이듯 답호 겨드랑이의 끈은 철릭과 답호가 단령의 보조복식으로도 많이 입혀졌던 이 시기의 복식생활 요소이므로, 인형답호에도 겉옷 고정용 끈을 부착하여 겉옷과 밑받침옷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앞서 밝혔듯 「중종실록」중종 14년과 17년의 기록에는 각각 사치품인 주단(紬單) 답호, 염색답호, 백저포(白紵布) 답호를 중인계급을 중심으로 금지시키자는 청원이 나타난다. 그러나 사대부들은 금제 전후로 사치스러운 답호를 즐겨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인형답호에는 시각적 효과를 위해 출토유물의 직물 중 고급직물을 선택하여 연화단을 염색하여 이용하였다. 이 연화단의 문양은 16세기 변수 묘 등의 유물에 나타난 연화문과 차이를 보이지만, 시판직물 중 가장 유사한 태로 고증 제작되었다고 판단되는 직물을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 당시 융복에도 즐겨 쓰였던 유행색상인 홍색 염색을 더해 철릭과 답호 세트의 시각적 포인트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홍색은 융복에도 많이 이용되었으므로, 상품화 시에는 바리에이션(variation)을 추가하여 철릭과 답호의 색상을 서로 바꿀 수 있다.

인형답호는 철릭처럼 165 : 63의 비율로 유물을 축소한 후 철릭처럼 허리선을 다소 높였고, 인형의 신체비율을 참고하여 뒷폭을 포함한 일부 사이즈를 미세하게 변경하였다. 철릭용 토주에는 부드러운 태를 내기 위해 푸세를 하지 않았으나, 덧옷인 답호용 연화단에는 형태유지를 위해 소목염색 후 푸세 처리를 더했다. 인형답호 디자인 샘플은

위의 <표 4>, 주요 사이즈는 <표 5>에 제시되었다.

4. 부속용품 제작

이 연구의 철릭과 답호 세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출 예를 제시하기 위해 해당시기 남성복식의 부속용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종 재위기에 조선을 방문한 명(明)의 정사(正使) 동월(董越)은 「조선부」에 다음처럼 조선남성의 차림새를 밝혔다.

“...사람들은 총환으로 귀천을 분별하며 머리를 싸는 망건은 모두 말총으로 만든다. 환(環)으로 품급을 정하는데 1품은 옥, 2품은 금, 3품 이하는 은, 서인은 뽕, 뽕, 구리, 민물조개껍질 등이다.(조선부 24)(...人露總環以分貴賤 其國總髮之網巾皆結以馬尾 以環定品級 一品玉 二品金 三品以下銀 庶人則骨角銅蚌之類而已)”⁴⁷⁾

“..백성들은 초모(草帽)를 쓰며 턱에는 구슬을 드리운다. 꼭대기는 둥글거나 모나며 색은 모두 검다... 신은 가죽으로 만들어서 진흙에 다니더라도 상관없다.(조선부 25)(...民戴草帽領皆垂珠 頂或圓方 色皆黑玄盧...履制以皮雖泥行亦所不恤.....)”⁴⁸⁾

이는 중종 즉위 약 16년 전인 1490년의 기록이며, 시기적으로 중종 재위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속용품 제작에 참고하였다. 립(笠)에 장식용 구슬 갖끈인 입영(笠纒)을 더하는 풍습은 원(元) 황제들의 초상과 고려 사대부의 초상에 두루 나타나, 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



<그림 8> 고려 갓끈(입영)
(출처: 『한국복식 2천년』, 1996, p. 41)



<그림 9> 최경선 망건
(출처: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01006_0003506493&cID=1&pID=1)



<그림 10> 인형 망건
(인형모델: CROBIDOLL)
(출처: 직접제작)

장품인 16세기의 『이현보(李賢輔) 초상』에도 검은 원정립(圓頂笠)과 입영이 표현되었다.⁴⁹⁾ 길이 85cm 전후이며 유리, 옥, 마노로 제작된 <그림 8>⁵⁰⁾의 고려 입영과 위의 자료를 참고하면, 중종 재위기의 입영은 턱 밑 또는 가슴에 닿으며 조선 후기의 것보다 짧은 형태로 추정된다. 다소 후대의 유물로 강릉최씨 진사공 휘호과 7세조인 최경선(崔景璿: 1561-1622)의 묘에서 <그림 9>⁵¹⁾의 망건이 발견되었는데, 재료는 흑색 천과 말총으로 보이며 이마 위쪽을 일부 감싸는 형태이다. 연출용 부속을 말총으로 실물처럼 제작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모를 썼을 때 밖에서 보이는 형태를 중시하여 말총과 가장 유사한 망사원단으로 인형망건을 제작하였다<그림 10>. 시판되는 모자 미니어처(miniature) 중에서 조선 전기의 원정립과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재가공하여 관모를 제작하였고, 시판 원석으로 조선 전기의 입영(笠纒)을 표현했으며, 술띠 제작에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16세기 광산노씨 노옥손(盧玉孫) 묘 출토 부장품 술띠⁵²⁾를 참조하였다. 이 부속용품들은 『중종 재위기의 철릭과 답호 세트』의 연출을 위한 것이지만, 신발은 자체 제작이 어렵고 시판되는 인형 전용 가죽신발이 없어 루츠(Luts)사의 인형테사혜로 대신하였다. 제작된 부속용품의 연출 예는 <표 7>에 제시되었다.

5. 『중종 재위기의 철릭과 답호 세트』 연출 및 리플릿

중종 재위기 유물의 특성과 인형의상에서 응용된 사항은 <표 6>에 제시되었다. 연구결과물인 『중종 재위기의 철릭과 답호 세트』는 기본적으로 동양적인 외모의 남성형 인형에게 어울리게 구상되었다. 그러나 취향에 따라 서양적인 외모의 인형을 소유한 소장자도 상당수이므로, 이러한 소장자도 연구결과물을 선택할 때 큰 거부감이 없도록 서양적인 이목구비인 크로비돌 사의 란스 레굴라 라인을 연출에 이용하였다.

<표 7>의 착용예시 1은 철릭 연출, 착용예시 2와 착용예시 3은 철릭과 답호를 세트로 연출한 것이다. 신발은 루츠(Luts)사의 상품이며 바지, 립, 입영, 망건, 술띠는 연출용으로 연구자가 재가공하거나 제작한 것이다. <표 8>은 연구결과물을 교육용 문화상품으로 구성하기 위해 ‘하늘바람’이란 상품명을 추가하여 『중종 재위기의 철릭과 답호 세트』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한 리플릿이다.

6. 한계점과 개선점

연구결과물을 관찰한 결과, 시대적 특성과 인형의상의 심미성은 비교적 잘 반영되었다고 판단된

<표 6> 중종 재위기 철릭과 답호의 특성 및 인형의상에서 응용된 사항

구분	유물의 대표 특성	인형의상 응용사항	비고	
철릭	직물	상의: 명주(겉감)/모시(안감) 하의: 명주(겉, 안감)	상의: 토주(겉감)/실크노방(안감) 하의: 토주(겉, 안감)	고운 묘 출도유물의 형식 참조 인형의상의 사이즈가 작으므로 유물보다 부드러운 직물 필요.
	비율	상의:하의 = 약 1:1	상의:하의 = 약 1:1.1	인체에 비해 인형의 다리가 길어 하의의 비율이 증가함.
	구성	화장이 매우 길고 폼이 넓은. 겹깃은 끝이 잘린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 안깃은 이중목판깃.	화장과 폼을 비율보다 다소 축소함. 김홍조 부부 묘 철릭의 금선단 고름바대 및 고름을 다소 넓혀 적용.	인형의 좁은 몸과 작은 손에 맞추어 사이즈를 응용함. 인형의상 착용 시의 형태안정성 및 미적 효과를 고려.
	주름	허리부근에서 잔주름을 잡음. 주름고정용 고운 홈질. 치마 12-14쪽.	유물형태를 따름. 치마 12쪽.	허리에서 원단이 지나치게 두껍게 몽쳐지지 않도록 약 0.2cm 간격으로 주름을 잡음.
	색상	대부분 탈색되어 확실하지 않음.	녹색(생쪽염색)	중종 재위기에 선호된 염색법을 적용.
답호	직물	겹명주, 모시, 단	연화단(겉감)/ 강직한 실크노방(안감)	형태고정을 위해 연화단에 푸세를 가함. 평상예복 및 포인트 의상으로서의 의미를 강조.
	구성	반소매, 사각무, 겹깃은 끝이 잘린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 안깃은 이중목판깃, 단령고정 끈.	출도유물 및 인형철릭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여 비율보다 미세하게 축소됨.	고운 묘, 이언충 묘 출도유물의 형태 및 세부장식 참조.
	색상	대부분 탈색되어 확실하지 않음.	홍색(소목염색)	중종 재위기에 선호된 의복 색상을 적용.

-철릭과 답호의 사이즈는 가능한한 165 : 63의 축소비율을 따랐으나, 인형의 체형 특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형태를 위해 사이즈가 미세하게 변화된 부분이 있음.

<표 7> 인형철릭과 인형답호의 착용 예시

착용예시 1 (인형철릭)	착용예시 2 (인형철릭+인형답호)	착용예시 3 (인형철릭+인형답호: 부분)
		
<p>-상의 부분의 과도한 부피감을 줄이기 위해 저고리를 생략하고 신발, 바지, 락, 입영, 망건, 술띠와 함께 연출함. -실제 색상은 착용예시 2와 가장 유사함.</p>		

다. 그러나 사지가 길고 어깨가 좁은 인형의 몸에 맞추기 위해 유물의 비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리선의 위치와 뒷폼 등의 일부 사이즈가 수정되었고, 인형철릭의 치마길이가 상의길이

보다 2cm 증가했다. 주름나비는 원단의 심한 꺾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약 0.2cm로 넓어졌고, 고름나비는 착용 시의 형태안정성을 위해 0.2cm 늘어났으며, 고름바대 나비는 미적 효과와 금선단의

<표 8> 리플릿

하늘비람 : 중종 재위기의 철릭과 답호 세트

조선시대 중종 재위기(A.D.1506-1544)의 사대부는 활동하기 편한 편복(便服)으로 철릭을 입었으며, 관복(官服) 차림을 할 때는 철릭과 답호를 밑받침 옷으로 입고 흉배(胸背)를 첨가한 단령(團領)을 위에 입었습니다. 철릭을 겹옷으로 입고 반소매가 달린 답호를 덧입으면 중종 재위기 사대부의 평상예복 차림이 됩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생쪽으로 의복을 짠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매우 선호했습니다. 발에 곡식 대신 쪽을 심고 많은 양의 쪽을 쓰는 사치스러운 초록염색을 즐겼기 때문에 의복을 초록으로 질게 물들이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졌으나, 이미 풍습으로 굳어져서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홍색 역시 매우 선호되던 의복색이었습니다.

- **하늘비람**은 중종 재위기 사대부의 평상예복인 철릭과 답호 세트입니다.
- 유품과 문헌을 참고하여 고증을 거친 디자인입니다. 철릭은 상하 1:1 비율이며 끝이 사선으로 잘린 반목관형 예각 이중깃 겉깃과 이중목판깃 안깃이 부착되고 가는 허리주름을 넣었습니다. 답호에는 철릭과 유사한 형식의 깃과 사각무가 부착되었습니다. (*고름, 고름바데, 주름의 나비는 인형의상의 미적 효과와 착용 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미세하게 넓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장 **63-65cm**의 SD급 남아에게 호환됩니다.
- 철릭과 답호의 재료는 토주, 익명주, 연화단, 금선단이며, 각각 **천연염료**인 생쪽과 소목으로 염색되었습니다. (*철릭과 답호의 색이 서로 바뀌거나 답호의 재료가 명주 또는 백저포여도 올바른 고증입니다.)
- 일광에 장시간 노출되면 탈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주세요.
- 오염되었을 때 심하게 비벼빨면 물이 빠질 수 있으므로 **드라이클리닝** 해주세요.
- 신발, 바지, 립, 입영, 망건, 술띠는 상품구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선주문(order made)로 제작됩니다.

© author

태를 드러내기 위해 0.6cm가 더 넓어졌고, 제작과정에서 답호의 깃 끝이 의도보다 다소 넓어졌다. 연출에 적합한 시판 부속용품이 드물어 바지, 립, 입영, 망건, 술띠를 직접 제작하거나 채가공하고 가죽신발은 시판되는 인형테사혜로 대체했으며, 시판부속을 사용한 술띠의 술이 다소 컸고 입영은 의도보다 약간 짧아졌다. 버선은 인형테사혜에 잘 들어가지 않아 부득이 양말형 소품으로 대체하였다. 상투가발과 속옷처럼 겉에서 보이지 않는 부속용품을 생각해야 했던 점도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상과 염색을 수공으로 재현해야 하므로, 가짓수를 2점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가 예상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결과물을 전통복식문화 교육용 문화상품 겸 수집가를 위한 고증인형의상 문화상품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위한 상품도 필요하므로, 염색과 명주의 태를 가장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는 시판원

단을 선택하고 일부 디테일을 단순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후속연구도 요구된다.

V. 결론

이 연구는 문화컨텐츠 소스로 각광받는 중종 재위기의 철릭과 답호의 형태와 재료 및 시대특성을 관찰하여 남성형 구체관절인형의상으로 고증 재현하고, 16세기 전반기를 테마로 한 교육적인 문화상품 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물인 『중종 재위기의 철릭과 답호 세트』는 인형모델의 특징, 중종 재위기 사대부 복식유물의 대표적 형태와 특성, 문헌에 나타난 중종 재위기의 복식문화를 중시한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고증인형의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물은 중종 재위기의 사대부 복식 형태를 중시한 철릭과 답호 세트로 도출되었다. 중

중 재위기 유물의 대표적 특징을 살려 상하 같은 비율, 끝이 잘린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 겹깃과 이중목판깃 안깃, 직배래에 가까운 소매가 달렸고 금선단 고름바대를 부착하고 허리에 잔주름을 잡은 풍성한 실루엣의 겹철릭 및 반소매, 넓은 사각 무, 철릭과 유사한 깃, 단령 고정용 끈이 달린 겹 답호를 제작하였다. 결과물은 인체의 추정신장과 인형의 신장을 따라 약 165 : 63의 비율로 축소되었고 최대한 고증을 중시하여 제작되었다. 그러나 인형의 긴 사지를 고려해 허리선의 위치를 포함한 일부 디테일의 사이즈가 수정되었고 제작과정에서 것이 미세하게 늘어났다. 겹침현상 해소 및 형태 안정성과 미적 효과를 위해 주름, 고름, 고름바대의 나비를 다소 넓혔는데, ‘상품’으로 제작된 인형 의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이자 인체용 고증 의상과의 차이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종실록」과 출토복식유물의 특성을 참고하여 재료로 도주, 익명주, 연화단, 장식으로 금선단을 사용하였다. 또한 중종 재위기의 두드러진 복식문화현상이었던 생쪽의 초록색과 선명한 홍색을 주 색상으로 설정하여 얼음매염 생쪽염색과 명반매염 소목염색을 이용하였다. 경제성을 위해 가짓수가 적은 철릭과 답호 세트를 선택했으나, 중종 재위기 사대부 복식생활에 대한 리플릿을 추가하였다.

셋째, 연구결과물은 고증인형의상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유물과 시대특성에 최대한 가까운 재현을 주목적으로 하여 천연염색, 명주, 기타 견직물을 이용한 수공품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작단가가 다소 높아져, 전통복식 문화 교육용 문화상품 겸 수집가를 위한 고증인형 의상 문화상품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연구결과물의 효용대상을 더 저렴한 고증인형의상을 원하는 소비자층으로 넓히려면, 시판직물로 형태와 색상을 구현하면서 고증과 상품의 질을 가급적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아울러 판모, 띠, 가발, 망건, 버선 등 전통인형의상의 올바른 연출을 위한 부속용품 개발도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고증인형의상 문화상품 연구에서는 인형의 특성, 고증자료의 정확성, 심미성, 경제성, 부속용품 개발이 중시되어야 하며, 관련연구는 이후에도 진행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은정, 윤은영 (2007). 조선 전기(15~16C) 답호 구성법의 일례: 하천 고운 갈색명주겹답호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37(0), pp.325-346.
- 2) 송미경 (2009). 조선시대 답호[塔胡] 연구: 17세기 전기까지, 복식, 59(10), pp.51-67.
- 3) 안명숙 (2011).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조선 시대 초기 출토복식의 구성법에 관한 연구: 광주 민속박물관 소장 고운(高雲) 출토 포류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2(-), pp.241 -271.
- 4) 이은주 (2006-a). 고운 묘 출토유물. In 문화재청(Eds.), 문화재단: 중요민속자료② 복식·자수편 (pp.354-361). 대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단.
- 5) 이은주 (2006-b). 김홍조 부부 묘 출토유물. In 문화재청(Eds.), 문화재단: 중요민속자료② 복식·자수편 (pp.362-369). 대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단.
- 6) 이은주 (2006-c). 이연충 묘 출토복식. In 문화재청(Eds.), 문화재단: 중요민속자료② 복식·자수편 (pp.370-375). 대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단.
- 7) 최은수 (2003). 변수(邊脩) : 1447~1524)묘 출토 요선 철릭에 관한 연구, 복식, 53(4), pp.163-176.
- 8) 김월계 (2009) 답호를 응용한 여성용 코트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9(4), pp.19-30.
- 9) 신윤숙, 최승연 (2007). 자외선에 의한 천연 염색 견직물의 취화 연구 -치자, 소목 염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5), pp.659-669.
- 10) 양월, 안춘순, 박진성, 이릉춘 (2012). 사관 수입 생쪽 분말 염료의 면직물에 대한 염색성 및 염색견뢰도 연구, 복식문화연구, 20(4), pp.463-474 .
- 11) 최정 (2011). 고려말 조선초의 상류층 여성 복식문화를 응용한 구체관절인형의상 문화상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9), pp. 3815-3826.
- 12) 국사편찬위원회: 중종실록(검색어: 철릭). 자료검색일 2013. 5. 11.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rchType=a&keyword=%EC%B2%A0%EB%A6%AD>
- 13) 강경미, 조경희 (2010).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벵타이 개발 -공예염색과 DTP기법 효과를 통한 해양이

- 미지 표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3), p.57.
- 14) 최정. 앞의 책, pp.3816-3817.
 - 15) 위의 책, pp.3816-3817 참고.
 - 16) 최혜울 (2008). 유목민의 꽃: 몽골여자복식의 흐름. 서울: 민속원. p.86.
 - 17) 송미경. 앞의 책, pp. 65-66.
 - 18) 윤소정 (2006). 미암일기(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 사대부 복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7-38.
 - 19) 이은주 (2006-b). 앞의 책, p.366.
 - 20) 이은주 (2006-a). 앞의 책, p.358.
 - 21) 홍나영 (2008).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남자 편복포의 시대구분, 복식, 58(5), p.120.
 - 2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정사공신 신경유 公 墓 출토복식, 용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p.90.
 - 23) 안명숙. 앞의 책, p.248.
 - 24) 이은주 (1999). 16 세기 전기 철릭의 구성법 일례: 김홍조 (1441-1528) 분묘 출토의 철릭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2), p. 250.
 - 25) 이은주 (2006-a). 앞의 책, p.359.
 - 26) 이은주 (1999). 앞의 책, p. 252.
 - 27) 안명숙. 앞의 책, pp. 248-249.
 - 28) 송미경. 앞의 책, p. 61.
 - 29) 이은주 (2006-a). 앞의 책, p. 358.
 - 30) 국사편찬위원회: 중종실록(검색어: 철릭), 자료검색일 2013. 5. 11.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rchType=a&keyword=%EC%B2%A0%EB%A6%AD>
 - 31) 이순자(2000), 조선시대 철릭에 대한 소고: 초기 철릭을 중심으로, In 광주민속박물관(Eds.), 광주·전남 지역 출토: 조선 중기의 우리옷 (pp.73-81). 광주: 광주민속박물관.
 - 32) 이은주 (2006-b). 앞의 책, p. 366.
 - 33) 이은주 (2006-c). 앞의 책, p. 373.
 - 34) 국사편찬위원회: 중종실록(검색어: 답호), 자료검색일 2013. 4. 11.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 mTree=0&id=kka>
 - 35) 이은주 (2006-c). 앞의 책, p.372.
 - 36) 송미경. 앞의 책, p.63.
 - 37) 한국고전종합DB: 중종실록(검색어: 초록), 자료검색일 2013. 5. 10.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JO& 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JO&jwid=kka_134&moId=120& daId=30&gaLid=kka_13412030_001&gaId=&yoid=&iId=&lId=&NodeId=jo_k-kka&setid=2036131&Pos=250& TotalCount=523&vipyunid=undefined
 - 38) <표 2>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중종실록(검색어: 초록), 자료검색일 2013. 4. 11. <http://sillok.history.go.kr/ inspection/inspection.jsp?mTree=0&id=kka>의 해석과 원문을 참조함.
 - 39) 정창권 (2011).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서울: 사계절출판사(주), p.91.
 - 40) 국사편찬위원회: 중종실록(검색어: 응복), 자료검색일 2013. 5. 11.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Tree=0&id=kka>
 - 41) 국사편찬위원회: 중종실록(검색어: 홍화), 자료검색일 2013. 5. 11.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Tree=0&id=kka>
 - 42) 한국고전종합DB: 중종실록(검색어: 홍색), 자료검색일 2013. 5. 10.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JO>
 - 43) 양월, 안춘순, 박진성, 이룡춘. 앞의 책, pp. 10-11.
 - 44) 신윤숙, 최승연 (2007). 자외선에 의한 천연 염색 견직물의 취화 연구: 치자, 소복 염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5), p.668.
 - 45) 전승민 (2012, 2. 1). 유골과 미라가 조선시대 사람 키 알려준다, THE SCIENCE, 자료검색일 2013. 5. 3 0. <http://news.dongascience.com/PHP/NewsView.php?kisaid=20120131200002275304>
 - 46) 이은주 (2006-a). 앞의 책, p.359.
 - 47) 董越 (1490). 朝鮮賦, 윤호진 옮김 (1995). 서울: 까치. p.45, p.80.
 - 48) 위의 책, p.46-p.47, p.81-82.
 - 49)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초상화, 서울: (주)놀와, p.438.
 - 50) 국립민속박물관 (1996). 한국복식 2천년, 서울: 신유문화사, p.41.
 - 51) 이재훈 (2010. 10. 6). 400년전 강릉 최경선 미라 망건 착용 뒷모습, 뉴시스, 자료검색일 2013. 11. 1.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01006_0003506493&cID=1&pID=1
 - 51) 옥손묘 출토품(玉孫墓出土品)(1990. 11. 15). 문화재청, 자료검색일 2013. 11. 30.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4,00060300,24

A Study on Doll Costume Design that Applied Noblemen's Chulrik & Dapho during Jungjong's Reign in the Joseon Dynasty

Choi, Jeo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Apparel Industry,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Jungjong's reign(A.D.1506-1544) in the Joseon Dynasty had a suitable political and cultural background for media contents, but it is quite rare to find doll costume products as cultural souvenirs through historical investigation about that period. This study is undertaken to supplement contents of male doll costumes that apply the features of noblemen's costumes during Jungjong's reign. The subject of study was the set of Chulrik and Dabho which was nobleman's semi formal wear. This set was worn on inside the Danryeong also, and had the costume characteristics prior to Japanese invasion of Korea(A.D.1592-1598). Boiled myungju, toju, lotus patterned jacquard silk and golden brocade were selected as main materials according to old literature and relics from noblemen's tombs. Green, the popular color during Jungjong's reign obtained through indigo dyeing, and deep red, the preferred color of nobelmen's clothing, were the keynote colo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ulrik for doll investigated had a loose and abundant silhouette, crossed double outside collar with scooped narrow square corner and double inside collar with square corner, the ratio of 1:1 upper and lower part, and cold indigo leaf dyeing. The features of the Dapho for doll were half sleeves, a big square gusset added on the side seam, a double outside collar with a scooped narrow square corner, a double inside collar with a square corner, deep red color, and a string to tie it up in Danryeong. Some details including the waistline were modified to the ratio of the doll's body within the limit of historical investigation. The main product of this study was designed as an educational doll costume souvenir based on investigation, and the application to popular products to be tried in the future.

Key words: Jungjong's reign, doll costume, historical investigation, Chulrik, Dapho